

17세기말-18세기말 프랑스 남자 쥐스또코르 유형변화와 패턴제작 연구

김 양 희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조교수

A Study of the Changes in Types of *Justaucorps* for French Men, and Patternmaking from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8th Century

Yang-Hee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투고일: 2009. 7. 8, 심사(수정)일: 2009. 9. 4, 게재확정일: 2009. 9. 15)

ABSTRACT

As basic materials in this research, 874 pieces of engraving that recorded the garment produced by diverse authors in the 17-18th century were collected among the collections of male and female garment in the engraving kept by National Library of France and 216 pieces of engraving were classified among them to observe justaucorps as stated in the materials. Since type of justaucorps in the 18th century can be classified by difference in shape and change through the above engraving materials in large quantity and the shape and composition can be compared and analyzed with other materials such as picture, stored garment, written materials without difficulty, the chronology can be composed by single type of justaucorps. Intending to understand the change in composition caused by type classification and pattern making as per analysis of type property of justaucorps, the men's upper garment in France in the 18th century.

Checking change in design per from and materials, justaucorps of 1680-1700s was in silhouette where waist in the length above knee was adhered and slightly spread to lower part. In the type of 1710-1750s, waist adhered remarkably and many pleats were made under waist to produce volume of form that spread to lower part like skirt. In the type of 1760-1780s, straight silhouette was attached to whole body and end of front adjustment in slant line turns to rear part.

The developmental aspect of construction can be checked by making pattern. Changing the cutting line of body plate to smoothly connect section and to try to adhere to the body, the development of simpler and delicate pattern production technique was confirmed.

Key words: man's cloth(남성복), justaucorps(쥐스또코르), pattern(패턴)

I. 서론

18세기 프랑스 남성복의 기본 요소는 걸 상의 쥐스또꼬르(Justaucorps), 중간상의 베스트(Veste), 속상의 슈미즈(Chemise) 그리고 하의 필로뜨(Culottes)이다. 이 기본요소들 중 쥐스또꼬르는 가장 대표적인 미학적, 기술적 가치를 지닌 남자 상의로써 프랑스에서 생성되어 18세기 동안 서부 유럽 전역에서 널리 착용된 유형이다.¹⁾

부셰(F. Boucher)의 정의에 의하면²⁾ 용어가 지시하는바 대로 쥐스또꼬르(justaucorps)는 몸에(corps) 밀착된(ajusté) 옷을 뜻하며, 1670년경 군복으로 사용되거나 시민들에 의해 착용되어져왔다. 디테일한 부분이 변화하면서 18세기 중엽까지 재단법과 장식이 단순해져갔고, 18세기 말엽에는 아비(habit)가 되었다고 하였다.

르로와르(M. Leloir)의 복식사전에서는³⁾ 쥐스또꼬르(justaucorps) 혹은 쥐스 따 꼬르(juste à corps : 몸에 꼭 맞는 옷)는 이전 시기의 남성 걸 상의 뿌르쁘앙(pourpoint)의 계보를 이은 유형으로 1670년경에 군복이었다고 하였다. 뿌르쁘앙은 허리선 아래로 여러 장으로 구성된 엉덩이 길이의 바스끄(basques)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쥐스또꼬르는 허리 이음선이 없이 바디스가 한 장으로 무릎 위까지 긴 길이로 구성되었고, 소매는 짧았다가 1675년에 이르러 밀착된 긴 소매가 되었고, 조금 더 후에 소매 밀단이 넓어지면서 커프스가 달리게 되었다고 했다. 18세기 초중반에는 바디스의 허리 아래 엉덩이 부분이 퍼지는 등 변화를 거듭했고 루이 16세 시대에는 쥐스또꼬르 라는 이름을 잃고 아비(habit)라 불리게 되었다고 했다.

두 복식사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쥐스또꼬르는 중세부터 17세기 말까지 착용되었던 남자상의 뿌르쁘앙의 뒤를 이어 1670년경 군복 혹은 시민복에서 유래하여 나타난 새로운 유형이며, 실루엣과 디테일에 있어 부분적인 형태변화를 보이다가 18세기 말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뀐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뿌르쁘앙 보다 단순한 구성으로 몸에 밀착시킨 입체의복으로써 현대 남성복의 형태에 근접한

보다 발전된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17세기 말엽 등장하여 19세기 초에 사라지기까지 쥐스또꼬르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확연한 형태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시기별 변화지점을 확실히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⁴⁾ 더욱이 이러한 연구의 결여는 국내 공연예술 분야에서 쥐스또꼬르 형태가 빈번히 오용되는 경우를 야기 시키는데, 예를 들어 오페라에서는 18세기 초의 형태가 18세기 중후반에 등장하는 일이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각 기관 학예연구원들의 자문과 선행연구의 참조에 의해 자료 타당성이 확인된 다수의 판화와 그림 및 보존복식 등으로 기초자료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유형 출현의 시기를 밝힐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확정된 시기별 유형을 패턴으로 제작하여 구성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응용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형태고찰 및 유형분류

기초자료로써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의 판화부(Département des Cabinet des Estampes)에 소장된 컬렉션 중 18세기 쥐스또꼬르를 고찰할 수 있는 판화 216장과 여러 미술박물관 소장 그림 4점 그리고 파리 의상박물관(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과 리옹 박물관(Musée des Tissus et des Arts décoratifs de Lyon)이 소장하고 있는 이 시기의 보존복식 6점이 디자인 고찰 및 유형 분류를 위해 사용되었고, 당시의 재단법을 기록하고 있는 기술 백과사전 중 1769년에 제작된 그라쉴(F. A. Grasault)의 '재단의 기술(L'art du tailleur)'이 머슬린 패턴 재현을 위해 참조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표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자료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소장 판화 부에서 남녀 복식에 관한 컬렉션 중, 17-18세기에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복식을 수록한 판화 874점을 수집하였고 이중 쥐스또꼬르를 관찰

할 수 있는 판화 총 216장을 분류하였다. 콜라스(Colas)의 복식 참고도서 목록과 프랑스 도서자산 목록 그리고 도서관 자체 분류 목록 중 관련 목록 번호 Oa 19와 Oa 20를 열람하여 본 연구의 자료목록을 형성하였다.⁵⁾ 수집된 판화들은 날장이나 전집물 형태로 보나르 형제(Le Bonnard), 마리엠티(J. Mariette), 아르누(N. Arnoult), 에리세(Herisset), 코이펠(Coytel), 뒤아멜(Duhamel), 에스노 에 라필리(Esnault & Rappilly), 슈로 에 바세(Chereau & Basset) 등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제작되었고,⁶⁾ 17세기말부터 18세기 초반기 71장, 18세기 중반기 47장, 18세기 하반기 98장의 자료 분포를 보였다.

또 각 시대별 대표유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판화 자료에 의해 분류된 쥐스또꼬르의 전체적인 형태를 다른 종류의 자료들과 비교, 고찰하여 형태 및 구성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특징을 파악하고 확인하여 단일 자료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자료 및 글 자료와 보존복식의 비교고찰에 의해서 더욱 정확한 형태와 디테일의 고찰이 가능하였다. 앞서 다량의 판화자료를 통한 형태 차이 및 변화에 의해 18세기 쥐스또꼬르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림, 보존복식, 글 자료 등의 타 자료와 형태 및 구성을 비교 분석하여도 무리가 없어, 쥐스또꼬르 단일 유형에 의한 연대기를 구성할 수 있었다.

2. 대표유형의 패턴제작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프랑스 남자상의, 쥐스또꼬르의 형태 특성 분석에 따른 유형분류와 패턴제작에 의해 구성변화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형태 분석에 의해 분류된 각 시기별 대표 유형의 패턴에 관한 당시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패턴제작을 위해서 기본치수를 정하고 머슬린으로 오른쪽을 입체 구성한 후, 구성된 머슬린은 다시 분해하여 최종패턴을 Cyber CAD로 작업하여 축도로 제시하고, CAD로 제작된 각 시기별 유형의 패턴을 비교하여 실루엣 및 소매, 여밈, 칼라 등의 구성 변화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Ⅲ. 각 시대별 쥐스또꼬르 대표유형의 형태특성

이전 시기와의 차이 및 변화를 주목하여, 실루엣의 변화를 기본으로 형태 특징의 차이에 따라 변화가 확실한 지점을 유형 분류기준으로 하였다. 확정된 시기별 쥐스또꼬르 대표유형은 1680-1700년대, 1710-1750년대, 1760-1780년대로 나누어진다.

1. 1680-1700년대 쥐스또꼬르

1680년경의 쥐스또꼬르는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길이로, 소매와 몸통 전체가 다소 여유 있게 밀착되어 직선적인 실루엣을 이룬다. 칼라 없이 둥근 넥라인이고, 앞 중심에 있는 여밈을 따라 단추가 촘촘이 달려있다. 엉덩이아래 밑단까지 뒤 중심에 한 개의 트임이 있어 움직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점차 길어졌고, 직선적이었던 실루엣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확장되어 A라인을 이루게 되었다. 소매는 매우 좁아졌으나, 소매 밑단이 급격히 확장되어 접어 입음으로 커프스 형태가 되었고, 그 아래로 베스트의 통이 좁은 소매가 보였다. 가로 혹은 세로 주머니가 엉덩이선 가깝게 낮게 위치하였다. 이렇게 1700년대에 이르러 실루엣의 변화가 있었으나 구조상 옆트임이 없는 17세기 후기의 형태가 18세기 초기까지 사용되었다.⁷⁾ 베르사이유 박물관 소장의 그림과(그림 1)⁸⁾ 17세기 말에 집중적으로 생산된 보나르의 판화들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모델을 제시한다(그림 2)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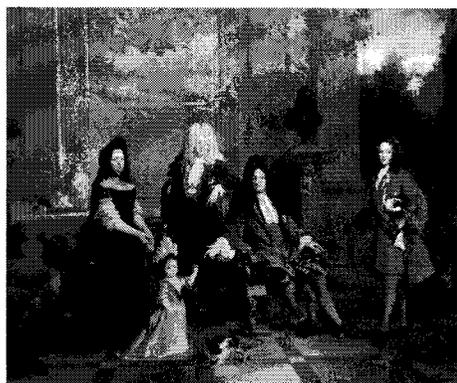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쥐스또꼬르 용직물은 나사, 사지, 기모 직, 플란넬, 멜턴 등의 모직물이었다. 궁중과 상류층의 전용물이었던 견직물은 타프타, 공단, 무지 벨벳과 무늬 넣어 짠 다양한 종류의 실크 등이 사용되었는데, 금사를 섞어 짠 브로케이드, 무늬벨벳, 톤 온 톤 효과를 낸 다마스크 등의 조직으로 큰 크기의 과일이나 장미, 작약 등을 사선 사방 대칭으로 뿔뿔하게 배치한 문양이 매우 웅장한 느낌을 이루었다. 갈색,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등 다양하지만 깊은 색상 군이 주를



〈그림 1〉 1675년 쥐스또꼬르 Louis XIV visitant la grotte de Thetis (detail), 1675, Musée de Versailles



〈그림 2〉 1678년 쥐스또꼬르 Louis Le Grand, 1678, BNF



〈그림 3〉 1711년 쥐스또꼬르 Louis XIV et sa famille, 1711, Boucher, p. 264.



〈그림 4〉 1730년 쥐스또꼬르 (Habits Ordinaires, 1730, BNF

이루었고, 장식 역시 술 장식 줄 장식 등 강하고 남성적인 장식이 지배적이었다.¹⁰⁾

2. 1710-1750년대 쥐스또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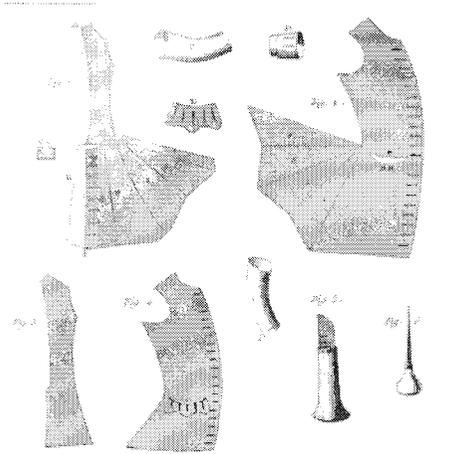
1711년 라르질리에르(Largillier)의 그림 '루이14세와 그의 가족 (Louis XIV et sa famille)' 에서〈그림 3〉¹¹⁾ 보는 바와 같이 1710년대 부터는 전체적으로 여유가 더하여졌으며 밑단으로 갈수록 확장되는 실루엣이 되었으며, 소매통이 밑단으로 갈수록 넓게 퍼지고 커프스 역시 같은 모양으로 넓어졌다.¹²⁾ 판화 전집 '1730년대 패션 (Mode de 1730)' 중 에리쎈

(Herriset)의 판화 일련에서는 정면과 후면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어 당시의 쥐스또꼬르를 세밀히 알 수 있게 한다. 허리가 매우 밀착되고 허리 아래로는 트임 위치에 많은 양의 주름을 잡아 밑단까지 스커트처럼 매우 퍼지는 형태가 되었다〈그림 4〉¹³⁾.

1729년 패션 잡지의 기원이 되는 '메르퀴르(Mercure)' 의 기사 내용에서는¹⁴⁾ "재단사들은 옷 한 벌을 만드는데 많은 옷감을 사용한다. 옆주름은 5-6개의 주름으로 매우 풍성하고 부피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종이, 프란넬, 심지 등을 안에 덧댄다."고 하였다. 〈그림 5〉¹⁵⁾ 18세기 상반기 쥐스또꼬르의 형태를 소



〈그림 5〉 1720-1750년
쥐스또꼬르 Justaucorps, 1750,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그림 6〉 1769년 쥐스또꼬르 패턴
L'art du tailleur, 1769, BNF, pl.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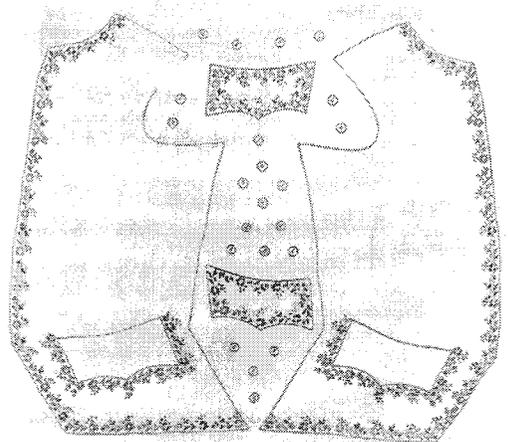
〈그림 7〉 1730년 쥐스또꼬르 Déjeuner
de chasse (detail), 1730,
Musée du Louvre

개하고 있는 '재단의 기술(L'art du tailleur)' 에 수록된 쥐스또꼬르의 패턴을 살펴보면, 거의 반 원 만큼의 주름 분량이 옆 선 트임에서 연장되어 각각 두개의 주름을 만들게 되어있고, 뒤트임은 평평하였다(그림 6)¹⁶⁾. 장 프랑스와 드 트로이(Jean-François de Troy)의 '사냥에서의 점심(Déjeuner de chasse)'에서 화면의 왼쪽에 등을 돌리고 시종들고 있는 두 명의 시종 옷에서는 이와 같은 주름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트임 뿐 아니라 전체 봉제 선을 따라 수를 놓아 이음 선들을 깔끔하고 장식적으로 감춘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7)¹⁷⁾.

이 시기의 쥐스또꼬르는 단추, 주머니, 커프스, 넥크라인, 앞여밈 선에 금, 은, 견사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 되었고, 쥐스또꼬르 앞을 열어놓고 입는 착용습관 때문에 벌어진 여밈 사이로 베스트의 형태를 잘 관찰할 수 있다. 쥐스또꼬르와 거의 같은 길이와 형태로 앞 자수 장식이 점점 더 화려해졌고, 때로는 입지 않고 생략하기도 하였다. 리옹 박물관(Musée des Tissus et des Arts décoratifs de Lyon)에 보관된 베스트 패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활용을 위해 여백에 위치시킨 단추 등 패턴 형태로 자수를 먼저 한 후 봉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¹⁸⁾.

나사, 사지, 기모 직, 플란넬, 멜턴 등의 모직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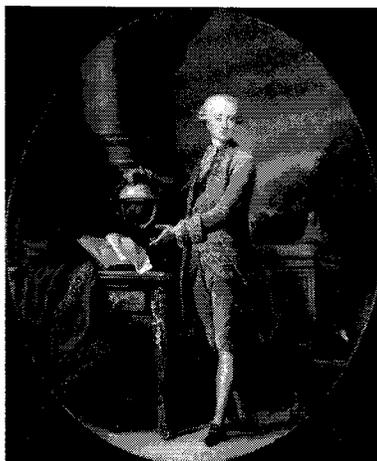
여전히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쥐스또꼬르 용 직물이었다. 견직물로는 타프타, 공단, 벨벳 등과 이전 시기보다 다양한 모티브를 -과일, 꽃, 식물, 풍경, 건축물, 리본, 레이스- 공간을 두고 배치하여 무게감이 덜 한 무늬 넣어 짠 실크가 선호되었다. 다양하지만 짙고 어두운 색상 군이 주를 이루었던 세기 초와는 달리, 세기 말로 갈수록 밝고 옅은 색조가 더욱 다양해졌다.¹⁹⁾



〈그림 8〉 베스트 자수 패턴
Patron de veste brodée, 18c.,
Musée des Tissus et des Arts décoratifs de Lyon



〈그림 9〉 1786년 쥐스또꼬르
Le Cabinet de Modes,
1786, BNF



〈그림 10〉 1776년 쥐스또꼬르
Prince of Nassau, 1776,
Indianapolis Museum of Art



〈그림 11〉 1780년 쥐스또꼬르
Costume d'apparat masculin,
1780,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3. 1760-1780년대 쥐스또꼬르

1760년대에는 이전 유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앞여밈이 곡선을 이루며 벌어지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슬림한 일자형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²⁰⁾

1778년부터 1787년 까지 정기적으로 출간된 가장 아름다운 관화 전집 중의 하나인 “프랑스 패션과 복식 갤러리(Gal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çais)”, 쪽수가 매겨진 6장 1권으로 구성된 묶음 지 형태로 1778년부터 1788년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된 Basset의 “루이16세 시대의 복식 전집(Recueil de costumes du temps de Louis XVI)”, 1786년 뒤아멜에 의해 선보이기 시작하여 1793년 초까지 보름마다 매우 정기적으로 간행된 패션잡지 “패션 캐비닛(Le Cabinet des Modes)” 등은 급격히 변화하는 당시의 패션을 빠른 속도로 소개하고 있다(그림 9)²¹⁾.

1770년경에는 쥐스또꼬르는 종종 아비(Habit)라 불리게 되었다.²²⁾ 르 브랭(Elisabeth Louise Vigée Le Brun)의 그림과(그림 10)²³⁾ 파리 의상박물관 소장(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이 소장하고 있는 이 시기의 보존복식 한 점을 살펴보면(그림 11)²⁴⁾, 밑 단의 부피가 매우 줄어 몸에 일자형으로 밀착되어 가는 실루엣을 보이게 되었고, 단추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앞여밈의 열린 간격이 벌어지게 하여 속에 입은 베스트의 절반가량이 드러났다. 또, 앞 중심의 허리 아래 자락이 사선으로 등갈게 벌어져 밑단이 무릎 뒤까지 돌아가 지금의 연미복처럼 꼬리를 형성하였다. 옆주름 또한 뒤 중심 쪽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주름분량도 거의 없어져 평평하게 되었다. 앞 중심 간격이 벌어진 만큼 소매 진동이 뒤로 붙게 되어 등 넓이가 좁아졌다. 소매 역시 매우 좁아져 손이 지나갈 수 있도록 소매 트임이 있게 되었고, 좁고 작은 커프스가 달렸다. 목에 붙고 등근 넥크라인과 벌어진 앞여밈 선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높은 스탠딩 칼라가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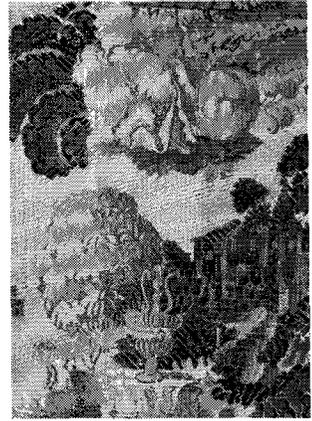
널리 사용되던 모직물외에도 면직물, 특히 17세기부터 인도로부터 유입됨에 따라 인디엔 이라고 불리어 졌던 프린트 직물이, 18세기 후반에는 매우 선호도가 높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인도의 여러 회사의 공장에서 찍기, 그리기 등의 기법으로 생산되어 쥐스또꼬르를 위해 사용되었다.²⁵⁾ 견직물은 18세기 말로 갈수록 매우 밀도 있게 제작한 타프타, 모아레, 다양한 이랑 조직, 금 은사를 섞어 짠 견, 새틴바탕의 무늬 직 등 다양한 직조기법으로 발전되었다. 1760년대부터 문양들은 로코코의 경쾌함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작은 꽃무늬가 매우 한적하게 위치하여 하



〈그림 12〉 앵디엔느, 1989, *Brédif*, p. 110.



〈그림 13〉 1720년 이전 문양, 1994, *Hardouin-Fugier*, p. 161.



〈그림 14〉 1730-1740년 경 1994, *Hardouin-Fugier*, p. 127.



〈그림 15〉 중국풍 문양, 1995, *Anquetil*, p. 86.



〈그림 16〉 1750년 이후 문양, 1994, *Hardouin-Fugier*, p. 343.



〈그림 17〉 1760년 이후 문양, 1994, *Hardouin-Fugier*, p. 212.

고 있으며 때로 줄무늬와 결합하기도 하였다. 세기 말로 갈수록 밝고 열은 색조가 더욱 다양해지고 연 하늘색, 연분홍색, 베이지, 연보라, 연노랑 등 파스텔 톤에 이르기까지 매우 가벼운 색상으로 바뀌었다.²⁶⁾ 장식은 18세기 말엽으로 갈수록 매우 가벼워져서 작고 섬세한 꽃무늬 자수로 장식하거나 리본, 레이스, 러플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²⁷⁾

본 연구는 패턴 제작을 위해 형태에 의한 유형분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림사료인 판화를 기초사료로 먼저 양적 분석하여 각 유형의 변화 시기를 도출하였고, 그림과 보존복식 사료로 보완하였

으며, 선행연구들의 참고에 의해 전체적인 비교와 종합을 하였다. 다량의 그림과 보존복식 사료로 초기 분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유형분류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여 아래와 같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시대에 따른 변화를 따로 살펴보았다.

모직물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나사, 사지, 기모 직, 플란넬, 멜턴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기모나사는 실내복용으로, 면교직물은 안감이나 여름 옷감용으로 쓰여 졌다.²⁸⁾ 면직물, 특히 면 프린트 직물이 17세기부터 인도로부터 유입됨에 따라 앵디엔느(indienne)

라고 불리어졌으며, 18세기 후반에는 매우 선호도가 높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인도의 여러 회사의 공장에서 찍기, 그리기 등의 기법으로 생산되었다²⁹⁾ <그림 12>³⁰⁾. 주요 견직물은 타프타, 공단, 무지 벨벳과 무늬 넣어 짠 실크 등 값진 것들로 궁중과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무늬 넣어 짠 견직물의 종류로는 18세기 초에는 브로케이드, 무늬벨벳 등이 17세기의 웅장한 모티브로 생산되었고, 18세기 말로 갈수록 매우 밀도 있게 제작한 타프타, 모아레, 다양한 이랑조직, 금 은사를 섞어 짠 견, 새틴바탕의 무늬 직 등 다양한 직조기법으로 발전되었다.

견직물 문양의 변화를 통해 당시의 미적 양식을 고찰이 가능하다.³¹⁾ 1720년경 전에는 큰 크기의 과일이나 장미, 작약 등을 사선사방 대칭으로 배치하여 다마스크 조직의 톤 온 톤 효과를 낸, 조용하고 웅장한 느낌이 주를 이루었다<그림 13>³²⁾ 1730년-1740년 사이는 과일, 꽃 이외에도 식물, 풍경, 건축물, 붓과 팔레트 등 문양이 다양해졌으며, 환상적이고 역동적인 문양이 직물에서도 그 절정을 이루었다<그림 14>³³⁾ 1750년경 이후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 사람과 중국 장식물을 꽃이나 식물과 결합한 문양, 또, 앞서 기술한 인도 면직물의 요소와 결합한 오리엔탈 풍이 등장하였고<그림 15>³⁴⁾ 짐, 탑, 다리, 리본, 레이스와 결합시킨 나뭇가지나 꽃문양이 이전 보다 공간을 두고 배치되어 있어 무게감을 덜 하였다<그림 16>³⁵⁾ 1760년경 이후 문양들은 로코코의 경쾌함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작은 꽃무늬가 매우 한적하게 위치하여 하고 있으며 때로 줄무늬와 결합하기도 하였다<그림 17>³⁶⁾.

세기 초에는 갈색,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등 다양하지만 짙고 어두운 색상 군이 주를 이루었고, 세기 말로 갈수록 밝고 옅은 색조가 더욱 다양해져서 연하늘색, 연분홍색, 베이지, 연보라, 연노랑 등 파스텔 톤에 이르기까지 매우 가벼운 색상으로 바뀌었다.³⁷⁾

4. 유형별 변화 특성

기초자료인 판화 216장, 그림 4점 그리고 보존복식 6점을 통해, 18세기 프랑스 남자상의 쥐스또포르의 형태 고찰에 따른 유형분류에 의하면, 허리까지 밀착되고 밑단은 약간 퍼지는 1680-1700년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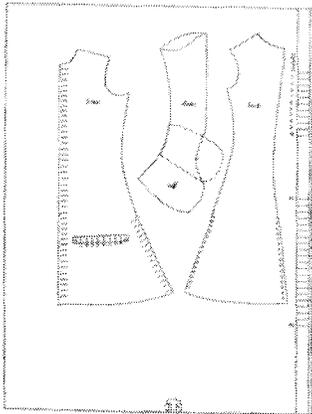
허리하단에서 밑단까지가 매우 퍼지는 1710-1750년대 유형, 앞여밈 끝자락이 뒤쪽으로 돌아갈 정도로 극도로 밀착된 1760-1780년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 유형별 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IV. 유형별 패턴제작에 의한 구성변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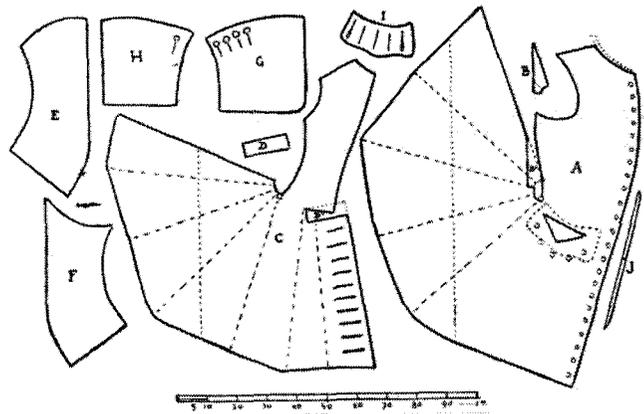
먼저 1769년에 그라쉴(F. A. Grasault)이 “재단의 기술(L'art du tailleur)”을 출간하였는데³⁸⁾, 왕립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기술백과사전의 한 부분으로 이를 통하여 18세기 의복 구조와 세부적인 제조기술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6>. 이미 재현된 보그(N. Waugh)<그림 18>³⁹⁾, <그림 20>⁴⁰⁾와 르로와르(M. Leloir)<그림 19>⁴¹⁾의 선행 연구에서는 모델제작에 사용할 마네킹과 비슷한 치수이고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 패턴들을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당시 인체표준사이즈를 알 수 없고 현대와 다르며 패턴 역시 바디에 매우 밀착되어 재현에 그대로 적용 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기본치수는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사이즈와 근접한 우리나라 남성복 표준사이즈를 채택, 가슴둘레 94cm 허리둘레 79cm 신장 170cm를 기준으로 하였다.⁴²⁾ 옷 길이에 있어서 시기에 따른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세 유형 모두 1m로 정하였고, 당시 좁은 어깨너비의 형태를 위해 표준 사이즈보다 3cm 가량 적은 38cm로 하였다. 시기별 유형의 형태에 따라 소매길이는 1680-1700s 유형 55cm, 1710-1750s 유형 55cm, 1760-1780s 유형 53cm로 1/2 커프스크기는 가로17.5cm x 세로15cm, 가로20cm x 25cm, 가로25cm x 세로10cm로 각각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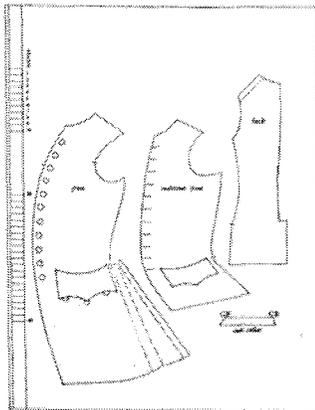
입체재단을 위해 스타일 테입으로 기준선을 표시하였다. 우선 앞 중심과 뒤 중심선을 표시하고 옆 목점, 어깨끝점, 옆 허리선, 엉덩이 옆선을 지나 바닥에 수직으로 이어지는 옆선도 표시하였다. 그리고 둘레 항목 선으로 목둘레와 허리둘레를 표시하고, 진동둘레의 모양은 진동 깊이는 낮고 진동 넓이는 넓은 형태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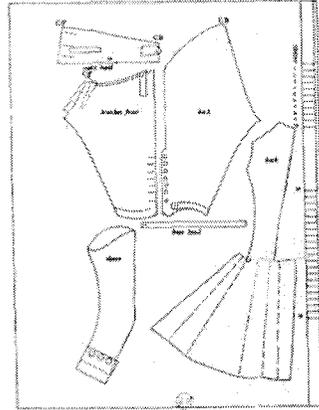
〈그림 18〉 1680년 쥐스또꼬르 재현 패턴, 1964, Waugh, p. 59.



〈그림 19〉 1730년 쥐스또꼬르 재현 패턴, 1933-1949, Leloir, 11, p. 12.



〈그림 20〉 1760년 쥐스또꼬르 재현 패턴, 1964, Waugh, p. 71.



1. 1680-1700년대 쥐스또꼬르 대표유형 패턴 제작

17세기 후기의 형태가 18세기 초기까지 사용되었으며, 1700년대에 옆선의 퍼지는 정도가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구조상 옆 트임이 없는 17세기 말 형태를 대표유형으로 선정하여 패턴을 제작하였다.

앞 중심과 뒤 중심이 식서가 되도록 하면서 앞 뒤 두 장으로 몸판을 구성하는데, 옷 길이는 무릎 바로 위까지이며 허리는 밀착되고 밑단까지 약간 퍼지는 실루엣을 만든다. 이때 옆선은 뒤쪽으로 3-5cm 가량 더가 있게 되고 몸판의 선을 따라 허리에서는 중심

에 더 가깝고 아래로 갈수록 옷의 실루엣과 함께 바깥을 향하는 곡선을 이룬다. 패턴 상에서 보면 허리 곡선이 잘 드러나고 밑단의 퍼지는 정도는 비교적 적다. 뒤 몸판의 허리중심에서 1-1.5cm 정도 파주어 등이 굽고 허리가 들어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들어맞도록 한다. 뒤트임은 뒤 중심 밑단에서 엉덩이 바로 아래 길이까지로 하고 단순한 가름술로 시접처리한다. 목둘레선은 앞 중심에서 1.5cm 가량 옆 목점에 서 0.8cm 가량 파주어 둥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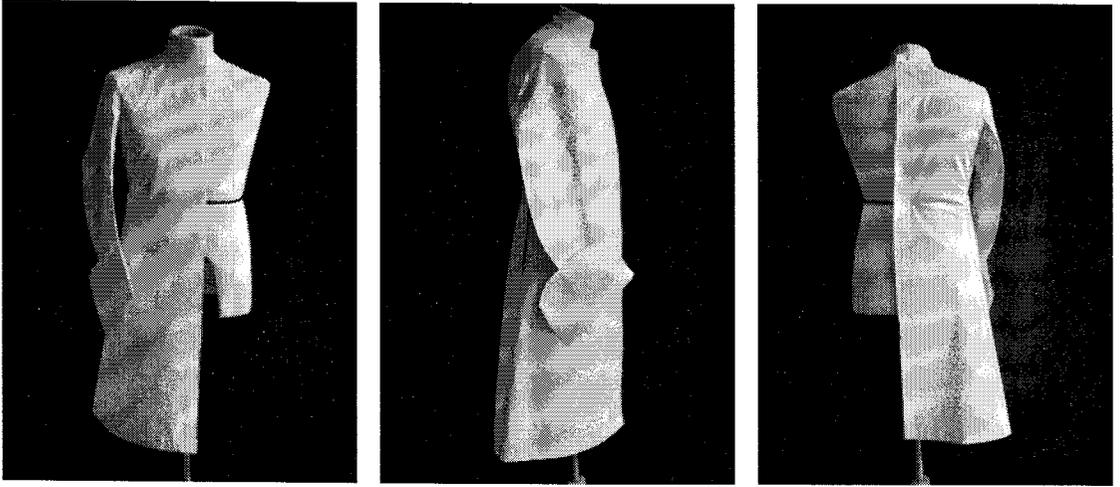
소매통이 매우 좁고 앞으로 휘어진 형태의 두 장 소매로 구성되며 소매 끝에 넘직한 커퍼스가 달린다. 소매와 몸판을 연결하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

<표 1> 18세기 Justaucorps의 유형별 변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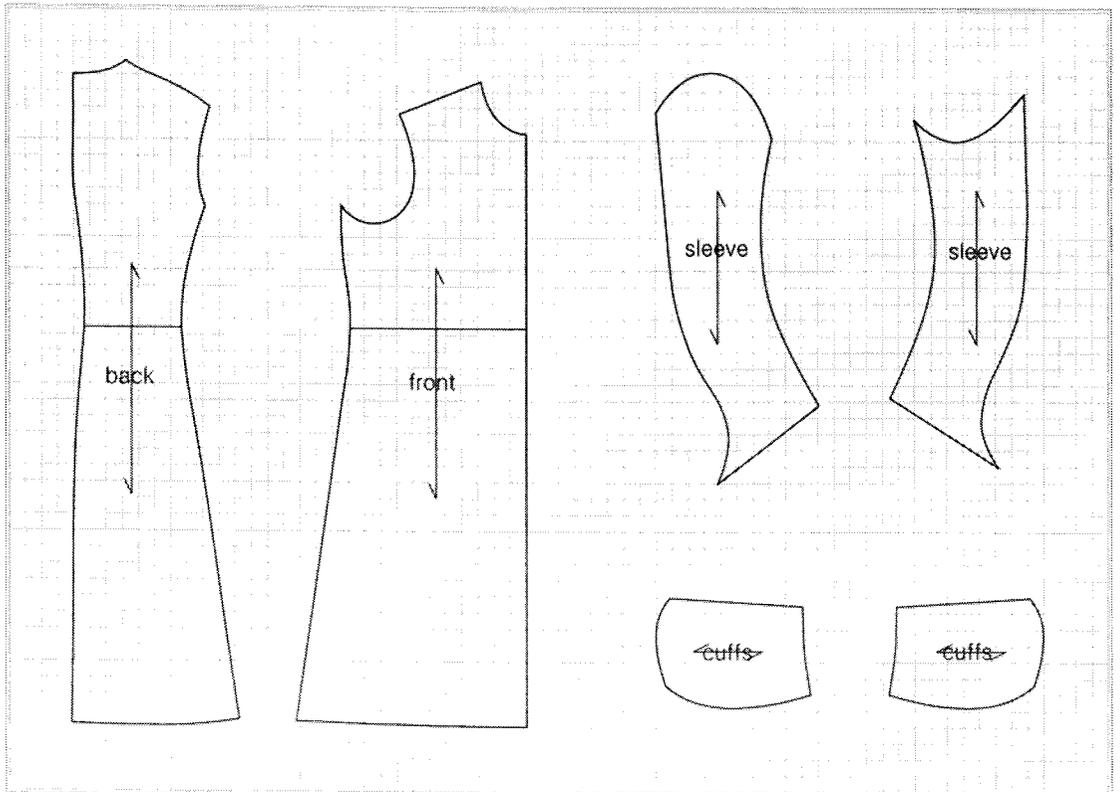
		1680-1700 유형	1710-1750 유형	1760-1780 유형
형태	바디스	-허리가 밀착되고 밑단은 약간 퍼지는 직선적인 실루엣 -앞 중심 일직선 여밈을 따라 단추가 촘촘히 달림	-허리가 매우 밀착되고 밑단까지 매우 퍼지는 실루엣 -옆선 밑단에 매우 풍성한 부피의 주름	-몸에 전체적으로 밀착된 가는 일자형 실루엣 -옆선이 뒤 중심에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옆주름 분량도 줄어듦 -사선 형 앞여밈으로 끝자락이 뒤쪽으로 돌아감
	뒤트임	-뒤 중심에 엉덩이아래 밑단까지 단순한 가름솔 트임	-뒤 중심 하단에 평평한 양쪽 주름을 삽입하고 단추 구멍을 일렬로 주름위를 장식	-뒤 중심 하단에 평평한 양쪽 주름을 삽입하고 절개선과 이음선 위를 자수 장식으로 감춤
	소매	-밀착된 긴소매로 급격히 넓은 커프스가 달림	-소매통이 밑단으로 갈수록 넓게 퍼지고 커프스 역시 같은 모양으로 넓음	-매우 좁게 밀착된 긴 소매에 좁고 작은 커프스가 달림
	칼라	-칼라 없이 둥근 넥크 라인	-목에 붙고 둥근 넥크 라인과 벌어진 앞여밈 선이 만나는 곳에서 서부터 스탠딩 칼라가 됨	-목에 붙고 둥근 넥크 라인과 벌어진 앞여밈 선이 만나는 곳에서 부터 높은 스탠딩 칼라가 달림
소재	직물	-나사, 사지, 기모 직, 플란넬, 벨턴 등의 모직물 -평직 면직물 -타프타, 공단, 무지벨벳, 브로케이드, 다마스크 등 무늬 넣어 짠 견직물	-나사, 사지, 기모 직, 플란넬, 벨턴 등의 모직물 -평직 면직물, 면 프린트 직물 -모, 견 교직물 -타프타, 공단, 벨벳, 브로케이드, 다마스크 등 무늬 넣어 짠 견직물	-나사, 사지, 기모 직, 플란넬, 벨턴 등의 모직물 -평직 면직물, 면 프린트 직물 -모, 견 교직물 -타프타, 공단, 벨벳, 브로케이드, 다마스크, 모아레, 다양한 이랑조직, 새틴바탕에 무늬 넣어 짠 다양한 직조기법의 견직물
	문양	-큰 크기의 과일이나 장미, 작약 등을 사선 사방 대칭으로 배치, 다마스크 조직과 같은 톤 온 톤 효과의 조용하고 웅장한 패턴	-과일, 꽃, 식물, 풍경, 건축물 등 문양 크기가 작아지고 다양해짐 -중국풍 요소와 결합한 문양이나 인도 면직물에 영항 받은 오리엔탈풍 등 이국적 패턴도 등장	-한적하게 위치한 작은 꽃무늬와 곡선 줄무늬와 결합된 경쾌하고 우아한 패턴
	색상	-갈색,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자주색 등 다양하지만 깊고 다소 무거운 색상이 주를 이룸	-여전히 다양한 색상들이 사용되었으나 이전 보다 가볍고 명확한 톤이 됨	-깊고 명확한 색상 군에서 연하늘색, 연분홍색, 베이지, 연보라, 연노랑 등 파스텔 톤에 이르는 매우 가벼운 색상까지 매우 다양함
	장식	-단추, 주머니, 앞여밈, 넥크라인, 밑단, 트임 뿐 아니라 전체 봉제선을 따라 자수 장식함 -큰 문양의 자수 장식, 술 장식, 줄 장식 등 웅장한 느낌	-단추, 주머니, 앞여밈, 넥크라인, 밑단, 트임 뿐 아니라 전체 봉제선을 따라 큰 꽃무늬나 금사 줄 자수 장식함	-단추, 주머니, 앞여밈, 넥크라인, 밑단, 트임 뿐 아니라 전체 봉제선을 따라 작고 섬세한 꽃무늬로 자수 장식함

였다. <그림 18>의 보그에 의해 재현된 1680년경 패턴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참조한 그라쉴의 1769년 당시 문헌이나 르와르의 선행연구 그리고 보그 나

머지 연구 모두에서 소매와 커프스를 분리하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구성방법을 따라 패턴을 제작하기로 했다. 소매 진동둘레의 모양이 등글어짐에 따라 몸판



<그림 21> 1680-1700년대 쥐스또꼬르 입체재단



<그림 22> 1680-1700년대 쥐스또꼬르 패턴 (1square=2.5cm)

의 진동에 뚜껑을 뵈듯이 소매가 자연스레 위치하게 되어, 연결 후 들뜨지 않게 된다<그림 21>.

최종 패턴을 CAD로 작업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
(그림 22).

2. 1710-1750년대 쥐스또꼬르 대표유형 패턴 제작

앞 중심선이 가슴에서 목선에 이르기까지 뒤로 넘어가고, 허리에서 밑단에 이르는 선도 뒤를 향해 휘어지게 된다. 앞 뒤 몸판 두 장으로 무릎 바로 아래 길이이며, 전체적으로 어깨가 딱 붙고 허리는 들어가며 밑단으로 갈수록 많이 퍼지는 실루엣을 구사하는데, 약간 뒤쪽 측면에 봉제선이 있고 허리 아래 부분 사이에 앞 뒤 각각 2개의 주름을 형성하여 그 퍼짐이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 패턴 상에서 보면 반원을 형성할 만큼의 날개 부분이 생긴다.

뒤 중심은 식서를 그대로 유지시키며 허리부분의 밀착을 위해서 뒤 허리 중심에서 1-1.5cm 정도 등의 곡선을 따라 파주어 밀착 시킨다. 옆 봉제선 역시 앞 몸판과 마찬가지로 허리곡선에 이어 아래로 퍼지는 날개를 형성하는데, 앞보다는 주름의 양이 덜하게 하여 주름 분의 균형을 맞춘다.

넥크 라인인 앞 중심에서 1-1.5cm 가량 옆 목점에서 0.8cm 가량 파준다. 앞 중심에서 3cm 정도 떨어진 넥크 라인과 둥글게 휘어진 앞여밈 선이 만나고, 이곳에서부터 3cm 정도 높이의 스탠딩 칼라가 달리

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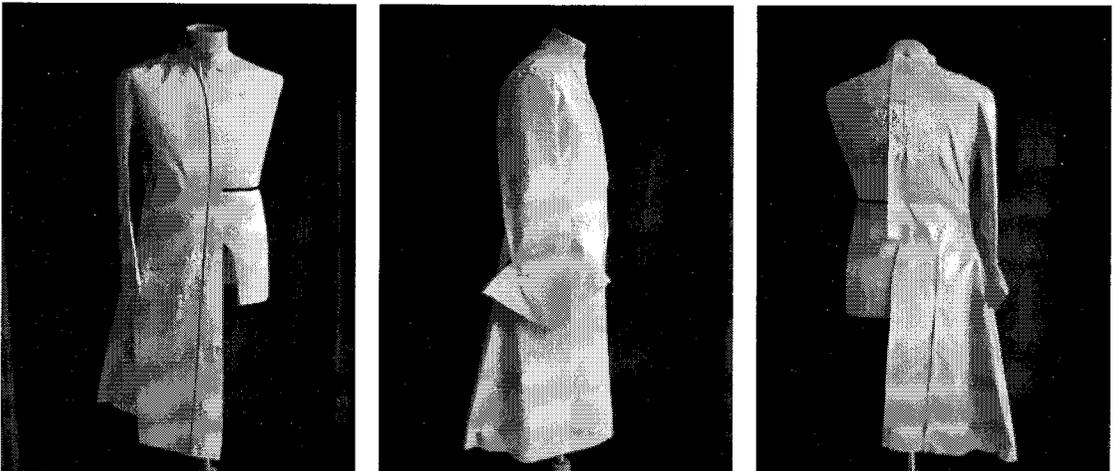
단순한 가름술 시접처리의 초기 뒤트임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양쪽 주름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트임을 해결하였다. 트임 꼭대기 부분을 주름이 위치하는 부분까지 가로로 자른 후, 뒤 중심이 직선이 되기까지 주름분량을 접는다. 단추 구멍 스티치로 절단부분을 마무리하고, 주름위에 일렬로 단추 구멍으로 장식한다.

많은 그림들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둥근 진동모양을 채택한 이후로 봉제에 의한 소매연결방법이 발전하여 관절의 움직임이 보다 원활하여 졌다. 어깨는 잘 맞게 안정되고 소매통이 커지고 단으로 갈수록 퍼진 형태에 크고 네모난 커프스가 달려 장식된다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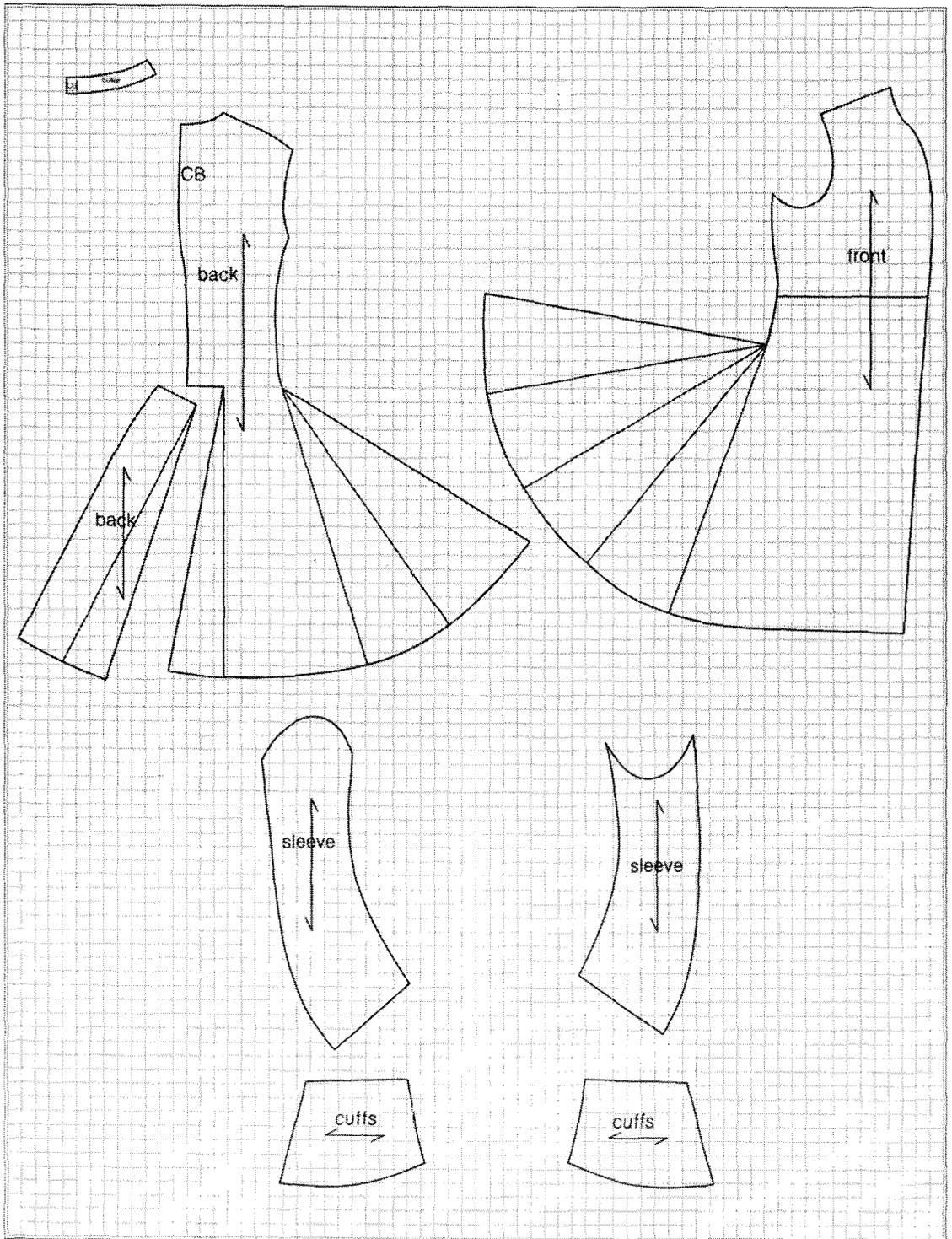
최종 패턴을 CAD로 작업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
(그림 24).

3. 1760-1780년대 쥐스또꼬르 대표유형 패턴 제작

무릎 바로 아래 혹은 종아리 길이의 밀착된 일자형 실루엣을 이루고 전체적으로 옷의 형태가 뒤로 휘어진 모양을 이룬다. 가슴중앙을 식서가 되게 하면 어깨부근과 앞 중심 하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bi-bias 정도의 흐름을 타게 되어 뒤로 넘어 가는 곳



〈그림 23〉 1710-1750년대 쥐스또꼬르 입체재단



<그림 24> 1710-1750년대 쥐스또꼬르 패턴 (1square=2.5cm)

까지 흐름이 자연스럽게 된다.

후자의 경우 허리부근에서도 바이어스가 되면서 뒤로 넘어 가는 곳까지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느질도 용이하게 된다. 뒤 중심에서 7-9 c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옆선이 위치하여 앞판을 열고 뒤까지 상당량의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뒤판 역시 뒤 중심을 식서로 하지 않고 앞과 비슷한 기울기의 바이어스로 재단하기도 한다. 뒤 허리 중심에서 1-1.5cm 가량 등의 곡선을 따라 파주어 허리가 밀착된다. 이 뒤 허리중심선이 밑단까지 연장되며 옆선도 허리 아래는 밑단까지 거의 직선으로 내려와 뒤가 편편한 모양이 된다. 가슴 중앙을 식서방향으로 놓고 재단하였다.

옆선 하단에 앞 뒤 거의 동일한 분량의 주름 각각 1개가 삽입되는데, 선이 거의 엉덩이 중앙을 지나게 되고 뒤로 휘어진 앞자락과 비슷한 기울기의 사선을 이루어 꼬리가 뻗어 있는 모양의 실루엣이 된다. 뒤 중심 하단에 옆에 주름이 있는 뒤트임을 만들고 절개선은 봉제하고 그 위에 자수를 하여 감춘다. 어깨선은 넥크 라인에서는 1cm, 어깨 점에서는 3-4cm 가량 뒤쪽으로 넘어가 위치한다.

넥크 라인은 앞 중심에서 1-1.5cm 가량 옆 목점에서 0.8cm 가량 파준다. 앞 중심에서 5cm 정도 떨어진 넥크 라인과 둥글게 휘어진 앞여밈 선이 만나고,

이곳에서부터 8cm 정도 높이의 스탠딩 칼라가 달려게 된다.

소매는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분만 있고 전체적으로 매우 좁은 직선형이다. 소매 끝에 연이어 10-15cm 정도 크기의 커프스가 달린다<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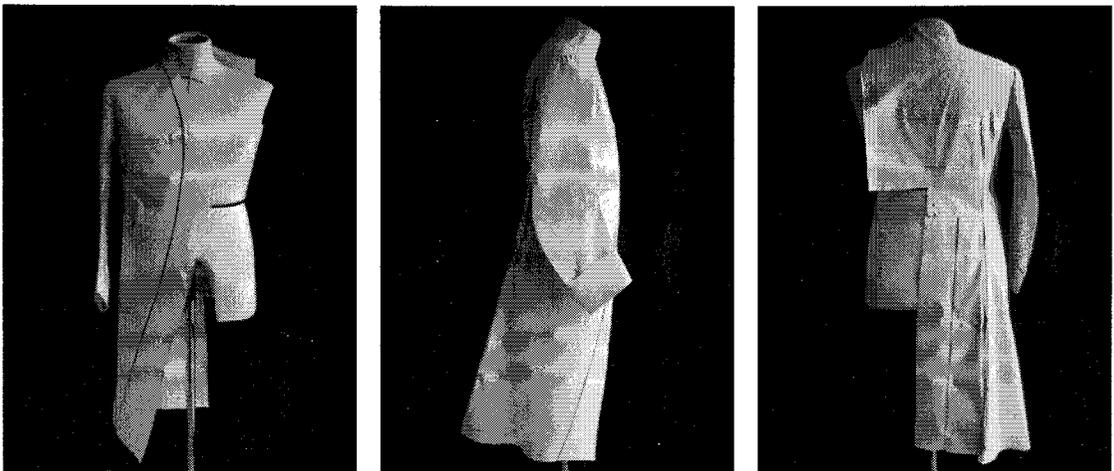
최종 패턴을 CAD로 작업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그림 26>.

4. 유형별 구성변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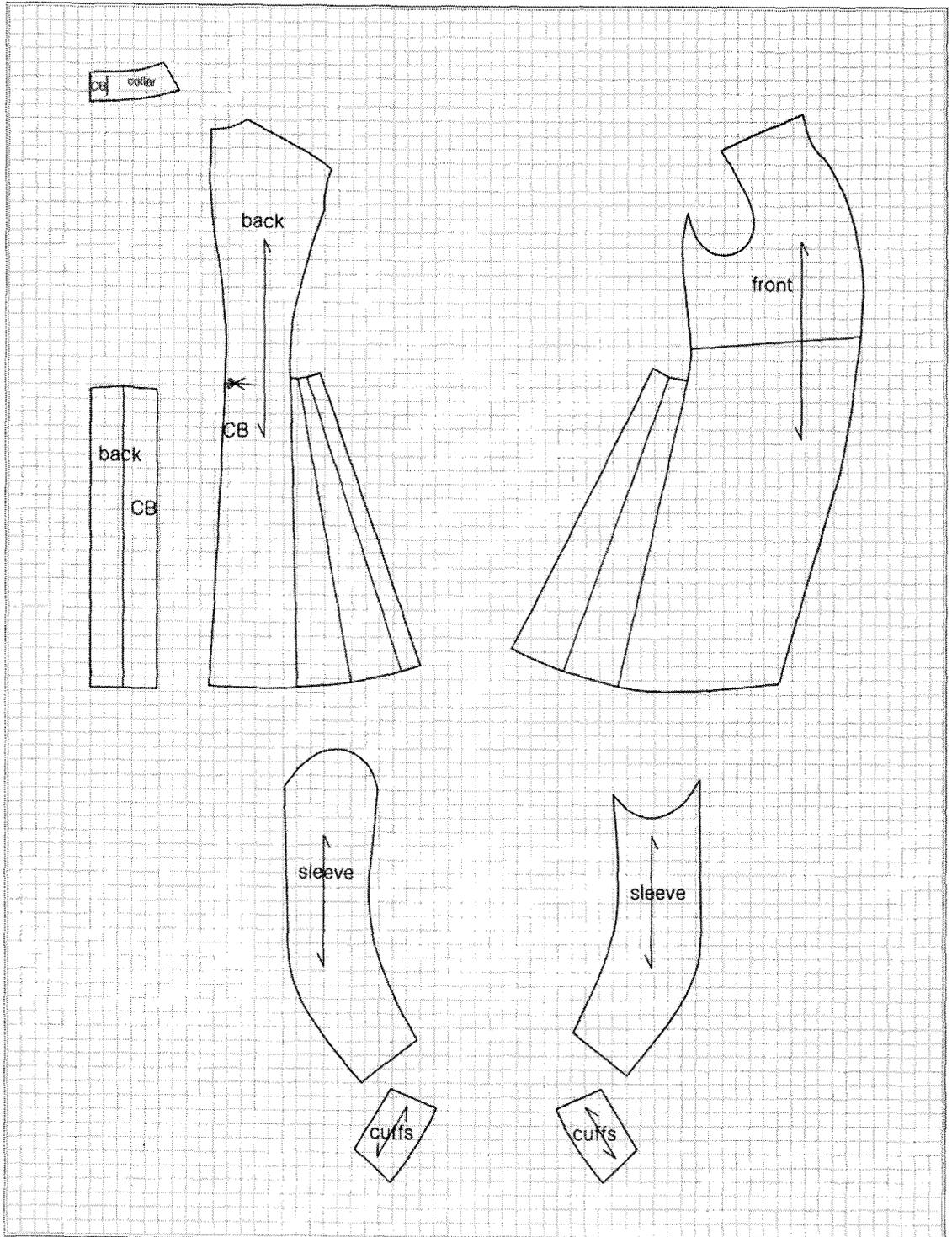
머슬린 입체구성 후 다시 분해하여 CAD로 제작된 최종패턴을 비교하고, 구성 변화 특성을 고찰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V. 결론

기초자료인 판화 216장, 그림 4점 그리고 보존복식 6점을 통해, 18세기 프랑스 남자상의 쥐스또꼬르의 디자인 고찰에 따른 유형분류에 의하면, 허리까지 밀착되고 밑단은 약간 퍼지는 1680-1700년대 유형, 허리하단에서 밑단까지가 매우 퍼지는 1710-1750년대 유형, 앞여밈 끝자락이 뒤쪽으로 돌아갈 정도로 극도로 밀착된 1760-1780년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림 25> 1760-1780년대 쥐스또꼬르 입체재단



<그림 26> 1760-1780년대 쥐스또꼬르 패턴 (1square=2.5cm)

<표 2> 18세기 Justaucorps의 유형별 구성변화 특성

		1680-1700 유형	1710-1750 유형	1760-1780 유형
바디스	실루엣	-무릎 바로 위 길이 -허리는 밀착되고 밑단까지 약간 퍼지는 실루엣	-무릎 바로 아래 길이 -허리는 밀착되고 밑단까지 매우 퍼지는 실루엣 -옆선이 뒤쪽으로 이동하여 아래에 여러 개의 큰 주름이 잡힘	-무릎 바로 아래 혹은 종아리 길이 -밀착된 일자형 실루엣 -전체적으로 옷의 형태가 뒤로 휘어짐 -뒤 중심에서 7-9 c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옆선이 위치하고 두개의 주름이 잡힘
	뒤트임	-뒤 중심 밑단에서 엉덩이 바로 아래 길이 -단순한 가름술로 시접처리	-뒤 중심 밑단에서 엉덩이 선까지 길이 -뒤트임 양쪽에 주름이 삽입된 방식	-뒤 중심 밑단에서 허리선 가까이까지 길이 -뒤트임 양쪽에 두개 주름이 삽입된 방식
칼라		-앞 중심에서 1-1.5cm 가량, 옆 목점에서 0.8cm 가량 파준 둥근 넥크 라인 -칼라 없음	-앞 중심에서 3cm 정도 떨어진 넥크 라인과 둥글게 휘어진 앞여밈선이 만남 -3cm 정도 높이의 스탠딩 칼라가 달림	-앞 중심에서 5cm 정도 떨어진 넥크 라인과 둥글게 휘어진 앞여밈선이 만남 -8cm 정도 높이의 스탠딩 칼라가 달림
소매		-손목까지 좁고 긴 두 장 소매로 앞으로 휘어진 형태 -소매 끝에 넉넉한 커프스가 달림	-소매통이 커지고 단으로 갈수록 퍼진 형태의 두장 소매 -크고 네모난 커프스가 달림	-소매는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분만 있고 전체적으로 매우 좁은 직선형 두 장 소매 -소매 끝에 연이어 10-15cm 정도 크기의 밀착된 커프스가 달림

유형 변화 특성을 살펴본 결과, 1680-1700년대 유형 쥐스또포르의 무릎 바로 위 길이의 허리는 밀착되고 밑단까지 약간 퍼지는 실루엣이었고, 1710-1750년대 유형은 허리가 매우 밀착되고 허리 아래 많은 양의 주름을 잡아 밑단까지 스커트처럼 매우 퍼지는 형태로 부피감이 있으며, 1760-1780년대 유형은 몸에 전체적으로 밀착된 가는 일자형 실루엣으로 앞여밈이 사선 형으로 끝자락이 뒤쪽까지 돌아간 특징적인 형태를 이루었다. 18세기 초반에는 크고 웅장한 문양에 짙은 색상의 소재에 화려한 술 장식이나 줄 장식으로 역동적이며 남성적인 미를 표출하였고,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색상과 소재 및 장식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경쾌하고 여성적이며 보다 섬세하고 우아한 양식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패턴 제작을 통해서 구성의 발전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몸판 재단선의 변화를 주어 구간 부의 연결을 원활히 하고 몸에 밀착시키는데 주력함으로 점차 단순하면서도 섬세한 패턴제작 기술이 개발됨을 알 수 있었다. 소매부분은 앞으로 휘어진 형태의

두 장 소매로 구성되어 통이 매우 좁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원활하며, 소매 진동돌레의 모양이 둥글어짐에 따라 몸판의 진동에 뚜껑을 덮듯이 소매가 자연스레 위치하게 되어 연결 후 들뜨지 않게 되는 등, 소매와 몸판을 연결하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허리, 주머니, 여밈, 뒤트임 등 디테일한 부분에 새로운 재단과 봉제법이 고안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뒤트임이 포함된 패턴을 제작할 수 있었다. 1680-1700년대 유형 쥐스또포르의 뒤트임은 뒤 중심 밑단에서 엉덩이 바로 아래 길이까지로 하고 단순한 가름술로 시접처리 하였고, 1710-1750년대 유형은 단순한 가름술 시접처리의 초기 뒤트임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양쪽 주름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트임을 해결하였다. 트임 폭대기 부분을 주름이 위치하는 부분까지 가로로 자른 후, 뒤 중심이 직선이 되기까지 주름분량을 접고, 단추 구멍 스티치로 절단부분을 마무리하고, 주름위에 일렬로 단추 구멍으로 장식하였다. 1760-1780년대 유형은 뒤 중심 하단에 옆에 주름이 있는 뒤트임을 만들고 절

개선은 봉제하고 그 위에 자수를 하여 감추었다.

참고문헌

- 1) Roche, D. (1989). *La Culture des Apparences*. Paris: Fayard, pp. 119-148.
- 2) Boucher, F. (1965). *Histoire du costume en Occident de l'Antiquité à nos jours*. Paris: Flammarion, p. 451.
- 3) Leloir, M. (1951). *Dictionnaire du costume*. Paris: Librairie Grund, pp. 204-206.
- 4) Boucher, F. *op. cit.*
Ruppert, J. (1990). *Le costume Louis XVI-Directoire*. Paris: Flammarion.
Delpierre, M. (1996). *Se Vêtir au XVIIIe siècle*. Paris: Adam Biro.
Leloir, M. (1933-1949). *Histoire du costume de l'Antiquité à 1914: Epoque Louis XIII 1610-1643*. Paris: Ernst.
- 5) Colas, R. (1933). *Bibliographie générale du costume et de la mode*. Paris: Librairie René Colas.
Bibliothèque Nationale (1939-1985). *Inventaire Fonds Français*. Paris: BNF.
- 6) Gaudriault, R. (1983). *La gravure de mode féminine en France*. Paris: Les édition de l'amateur, pp. 20-41.
- 7) Leloir, M. (1933-1949). *Histoire du costume de l'Antiquité à 1914: Epoque Louis XIII 1610-1643, 10*. Paris: Ernst, pp. 8-21.
- 8) unknown (v. 1675). *Louis XIV visitant la grotte de Thetis*. Musée de Versailles.
- 9) Bonnart, H. (1678). *Louis Le Grand*. Paris: BNF. Oa61C2234.
- 10) Delpierre, M. (1996). *op. cit.*, pp. 65-68.
- 11) Boucher, F. *op. cit.*, p.264. Peinture de Largilliere. (1711). *Louis XIV et sa famille*.
- 12) Quicherat, J. (1879). *Histoire du costume français depuis les temps les plus reculés jusqu'à la fin du XVIIIe siècle*. Paris, pp. 558-564.
- 13) Herriset, H. (1730). *Habits Ordinaires*. Paris: BNF. Oa79R084677.
- 14) Coypel. (1729). *Les modes du Mercure de France*. Paris: BNF.
- 15)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1750) *Justaucorps droguet liseré*. UCAD 3292: (1730-1740) *Justaucorps velours frisé, broché métal*. INV. OAP 630.A.: (1720) *Justaucorps drap de laine, broderie de soie coloris écru*. UCAD 3733.A.
- 16) Grasault, F. A. (1769). *L'art du tailleur*. Paris: BNF, pl. 5.
- 17) Troy, J. -F. (v. 1730). *Déjeuner de chasse(detail)*. Paris : Musée du Louvre.
- 18) Musée des Tissus et des Arts décoratifs de Lyon (18c.). *Patron de veste brodé*.
- 19) Gontier, J. (1985). *La soierie de Lyon*. Le Puy : Christine Bonneton Editeur, pp. 18-26.
- 20) Ruppert, J. *op. cit.*, pp. 5-9.
- 21) Duhamel. (1786). *Le Cabinet de Modes*. Paris: BNF. Oa85E050258.
- 22) Leloir, M. (1951). *op. cit.*, pp. 204-206.
- 23) Le Brun, E. L. V. (1776). *Prince of Nassau*. Indiana: Indianapolis Museum of Art.
- 24)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v. 1780). *Costume d'apparat masculin, en velours de soie*. UFAC 6225. I. ABC.
- 25) Delpierre, M. (1981). "L'imprimé" dans la mode du XVIIIe siècle à nos jours. Paris : Musée de la Mode et du Costume, pp. 7-18.
- 26) Roche, D. *op. cit.*, p. 137.
- 27) Boucher, F. *op. cit.*, p. 308.
- 28) Delpierre, M. (1996). *op. cit.*, pp. 65-68.
- 29) Delpierre, M. (1981). *op. cit.*, pp. 7-18.
- 30) Brédif, J. (1989). *Toiles de Jouy*. Paris: Adam Biro, p. 110.
- 31) Algooud, H. (1986). *La Soie. Art et Histoire*. Paris: La Manufacture, pp. 117-140.
- 32)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1994). *Les Etoffes. Dictionnaire historique*. Paris: les édition de l'amateur, p. 161.
- 33) *Ibid.*, p. 127.
- 34) Anquetil, J. (1995). *La Soie en Occident*. Paris: Flammarion, p. 86.
- 35) Hardouin-Fugier, E., Berthod, B. & Chavent-Fusaro, M. *op. cit.*, p. 343.
- 36) *Ibid.*, p. 212.
- 37) Roche, D. *op. cit.*, p. 137.
- 38) Grasault, F. A. *op. cit.*, pl. 5.
- 39) Waugh, N. (1964).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London: Faber.
- 40) *Ibid.*, p. 71.
- 41) Leloir, M. (1933-1949). *op. cit.*, p. 12.
- 42) 남윤자, 이형숙. (2005). 남성복 패턴 메이킹. 교학연구사, p. 52.